

# 대구광역시

## 우병윤 예비후보 여의주 물고 여의도 간다...

### 4.10총선 우병윤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1호 공약 발표 표심 다져

국민의힘 의성정송영덕 국회의원 우병윤 예비후보는 22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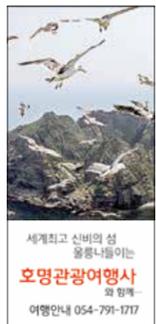
우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 내용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현 △불체포 특권 포기 △공금이상 형 확정 시 세비반납 △국회의원 세비 4년간 동결 등이다.

우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해당 공약을 이행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그동안 비리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의 방패로 이용당해왔다.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동결을 정치혁신 과제로서 "스스로 연봉을 셀프 인상하는 직업은 국회의원밖에 없다. GDP 대비 최고 수준임에도 매년 조금씩 인상해 온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정치혁신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의성정송영덕은 농촌지역으로서 대다수 농민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혁신의 핵심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상식의 정치, 깨끗한 정치로 신뢰받는 국회의원의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세계 최고 신비의 섬 울릉도·독도는 호명관광여행사 여행안내 054-791-1717

소년나무 1천만원 전달

'소년나무'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성금은 권창욱(우) SY KINT 대표와 배우자인 이해경 씨가 막내딸의 애칭인 '소년나무'란 이름으로 기부했다.

부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500만원을 기탁했다.

### 영덕군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단지 706억투입

#### 경북도, 노동력중심 가공산업 스마트 수산가공산업 대전환

경북도가 노동력 중심의 가공산업을 스마트 수산가공산업으로 전환, 행정력을 모은다.

이영석 경북도 환경해지지역본부장은 "이들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단지를 수산경제·관광·청년창업·기업승계 등을 융화한 '글로벌 블루푸드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영덕군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단지에 총사업비 706억원을 투입한다.

도내 수산가공업은 2018년 316곳 종사자 3209명에서 2022년에는 249곳 2244명으로 크게 줄었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이탈, 청년들의 여촌지역 비선호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력 중심의 가공산업을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으로 전환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영덕 U&I 수산복합

경제·생활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94억원(국비 266억원, 도비 128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기술(IoT, AI 등)을 적용한 1차 가공시설, 수산식품 R&D센터, 물류창고 등을 주요 시설로 지어 수산가공산업의 지휘탑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영덕 U&I 수산복합 경제·생활플랫폼'사업은 '어촌신활력 증진'(1유형, 총 300억원)사업에 따라 2024년 시행계획에 착수했다.

2026년까지 총 16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24억원, 군비 56억원)을 들여 2차 가공시설과 창업·기업지원, 예비창업자 주거 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도는 또 제1로하스 수산식품 농공단지에 22필지가 분양돼 17개 기업 입주 완료, 제2단지 조성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2억원(도비 23억원, 군비 68억원, 기금 61억원)을 투입해 주변 일대 10만832㎡의 터를 확보, 기반시설을 조성, 수산식품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 김성용 기자

### 대구 기업 10곳 중 9곳 설 연휴 나흘 휴무...

대구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올해 설 연휴 4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기업 291

개사를 대상으로 설 휴무계획을 조사한 결과, 90.4%가 설 연휴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4일 쉰다고 답했다.

5일 이상 쉬는 곳은 5.8%, 2-3일 휴무하는 업체는 3.8%로 나타났다. 설 상여금이나 선물을 지급하는 기업은 84.2%로 지난해(77.7%)보다 6.5%p 증가했다. 설 선물을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이 37.6%로 가장 많고 '현금+현물(35.5%), '현금(26.9%) 순이었다. 조미경 기자

### 홍준표, "대구 청렴도 1등급 달성 총력"

#### 부패 사전 차단하는 대책 마련 실·국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확립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올해는 2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 2022년 연속 4등급의 불명예를 떨쳐내고 2등급을 달성했다.

홍 시장은 소방안전본부의 '성서공단 등 산업단지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 "화재에 취약한 공단과 서문·질성·서남시장 등 전통시장은 여전히 대형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항건설단의 '대구공항 노선확대 추진'에 대해 "TK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호바루, 호치민, 칭다오와 더불어 사천성 성도에 부정기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라"고 주문했다.

후적지개발단의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후속업무 추진'에도 신경 썼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간 조정·지원 등 후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경제국의 '글로벌 도시 대구 영어 표기 표준화·통일화 추진'에 대해서는 "신공항, 5대 신산업, 경북대 등 영어 표기가 부정확하거나 여러 표현이 혼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비 대상 영문 표기를 일원화해서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에 대해 "내부 청렴체감도가 외부 청렴체감도보다 낮은 것은 잘못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실·국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끝으로 "설 명절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정 전반에 걸쳐 미리 살펴보고 대비해서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여은 기자





### “특정후보 지지 안주찬 구미시의장 사퇴해야”

구미시의원들이 22일 안주찬 구미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승수·김근한·양진오·소진혁·장미경·정지원 구미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민을 대표하는 시의장이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장은 시의원을 대표하고 여야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빠져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미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망행위이며, 시의회의 중립성을 내다버린 행위”라며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경북도 갑진년 10억 달러 수출 달성 올인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 창립 김주령 道 농축산 유통국장 작년 농식품수출 첫9억달러 돌파 저력 다시한번 살리자

지역의 식품수출 산업을 활성화하고 선도하기 위한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가 창립했다.

지난 19일 안동 씨네파크호텔에서 사단법인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를 창립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대전환 추진으로 농식품 수출 최초로 9억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창립행사에는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기욱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정우석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식품수출을 하는 37개사로 창립된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는 지역의 식품수출산업을 활성화하고 선도하기 위한 식품수출기업 중심 단체다.

수출기업 판로개척과 경북도의 식품수출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한입섭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장은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창출 및 수출신장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판촉전을 열어 경북 식



품기업 제품을 수출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는 데 집중했다. 올해는 미국, 두바이 등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 회원사와 함께 올해 10억 달러 수출 달성에 행정력을 모은다. 김성용 기자

## 동구청, “일할 수 있어 노년이 너무 행복해요”

2024년 노인일자리아업 올해 4546명 선발 운영

대구 동구청이 ‘2024노인일자리아업’을 본격 시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득창출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공익형 3343명, 사회서비스형 823명, 시장형 245명, 취업알선형 135명 등 4개 유형 4546명을 선발 운영한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활동은 1일 3시간, 월 30시간 정도 하게 되고, 급여는 월 29만원 선이다.

사업유형별로 신청자격·근무시간·활동비의 차이가 있다.

공익형 공익형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다.

관내 공원·놀이터 등 공공시설의 불법투기 쓰레기 제거와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하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도움이 필요한 홀몸·조손·노인부부 등 어르신 세대에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파견’, 폐건 전지 수거함을 설치, 수거를 지원하는 ‘플러스사업’ 등 32개 사업이 있다.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아업이다.

지하철 역사, 동대구역 승강기의 안전 점검 과 신고를 통해 승강기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배부한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는 ‘시니어 소방안전지원단’ 등 11개 사업이 있다.

시장형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개소한 ‘소담한상’이 대표적이다. ‘소담한상’은 2023년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돼 폐업으로 방치된 유치원 공간을 한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현재 성업 중이다.

취업알선형 취업알선형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된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 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이다.

동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동구취업지원센터라는 사업단을 통해 아파트경비·주차관리·건물청소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한다.

조미경 기자

## 경북도,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 552억 절감

공사 품질 안전확보 불필요한 예산 절감

경북도가 지난해 원가심사에서 5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말했다.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군,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124건 1조4312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 결과다.

계약원가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억 원(일일반용

역 1억 원) 이상, 물품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86%로, 분야별 절감액은 도로·건축공사 551건 465억, 용역 241건 53억, 물품구매 264건 8억, 통신·기계·소방공사 68건 26억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사·군이 658건 456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2.6%를 차지했다.

도는 410건 82억 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6건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는 계약원가심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 다음달 계약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열고 심사 실적 우수 사·군을 시상한다. 김성용 기자

상반기 청산회 정례회의 올해 군위군정 현안 논의

“도약 위해 지혜와 힘 모아야”

군위군 기관·단체장 모임인 청산회가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군부대 유지 특별위원회 구성, 위전 국가하천 승격, 설 명절 맞이 환경정비 등 군정 주요 추진 현안에 대한 설명과 각급 기관의 협조사항 전달 등을 공유했다.

올해 군위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기로 결의하며 지역의 리더로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진열 회장은 “지난해 군위군이 역사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올해도 군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 대구은행, 병원 비급여 진료비 조회 서비스

전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비급여 항목별 조회 가능



DGB대구은행은 생활금융플랫폼 iM#(아이엠샵) 고객의 알뜰한 병원 진료비 지출을 위한 비급여진료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병원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르다.

대구은행은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쉽고 편리하게 병원비를 조회해 비급여 진료 항목별 가격 비교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자체 플랫폼인 생활금융플랫폼 iM#을 통해 제공되는데 iM#은 대구로페이, 포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이용 고객들의 총

전 및 간편결제제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비롯해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M# 라이프 카테고리에서 비급여 병원비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의 현재 위치 기준으로 검색하고 싶은 비급여 선택 후 가격이나 거리 순으로 병원 정보 확인 후 방문이 가능하다.

독감백신과 예방접종, 치과와 시술 등의 비급여 항목별 조회가 가능하며 정렬 순서에 따른 병원 정보와 가격,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iM#의 의료 특화 라이프 서비스는 앱 초기부터 실시하던 건강생체나이분석에 이어 이번 비급여진료비 조회 서비스가 추가됐다.

추후 병원 예약, 건강검진 예약, 결제 등의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진영수 IMBANK대표는 “향후 시중은행 전환을 맞아 전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비급여진료비 조회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iM#은 전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 증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속 성장시켜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 달서구 대표 거대 원시인 이름 지어주세요

거대 원시인 조형물 정식 명칭 선정 위한 SNS 공모 행사 진행



달서구가 22~30일까지 관내 진천동에 위치한 이만년의 역사가 잠든 곳 거대 원시인 조형물의 정식 명칭을 정하기 위한 SNS 공모 행사를 한다.

명칭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달서구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로 참여 가능하다.

심사에서 당선작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 선정이 되지 않은 참가자에게도 무작위 추첨으로 소정의 참가상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한다.

2018년 조성된 거대 원시인 조형물은 설치 초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조형물에 마스크 설치를 시작으로 대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국화꽃과 눈물 조형물, 투표 독려 마스크 설치 등 여러 공익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결과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현재 달서구는 거대 원시인 조형물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달서구민과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고 있다. 조미경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새해 첫 청렴 메시지...

주낙영 경주시장이 새해 첫 '청렴 메시지'로 조 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주 시장은 22일 오전 청사내 앞뜰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를 위해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문화 확산을 주문. 간부공무원 대상 '경주 시 조직문화 개선 행동수칙'을 공개했다.

공개된 행동수칙은 공직사회 관행인 부서장 위주 회의문화 탈피를 포함해 보고서 간결화, 회의문화 개선, 휴가장려 등이 담겼다. 공직사회 내 조직문화 개선, 대시민 소통으로 적극 행정 강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변 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 경주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가능 어르신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병행

경주 23개 읍면동지역에 365일 24시간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육외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확대되면 야간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빠 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된 다"고 말했다.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시민 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육외형 무인민 원발급기 7대를 설치한다.

설치는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인 강동 면, 내남면, 문무대왕면, 보덕동, 산내면, 서면, 천 복면 등 총 7곳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을 비롯한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총 25곳에 27대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육외형 무인민원발급기 7대 설치가 완료 되면 모든 읍면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되는 셈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 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 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 인서 등 총 119종이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무인민원발급기 화 면위치 조정과 글씨크기 확대가 가능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장구 대비 최대 50% 감면된 금액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육외부스에는 휠체어전입로, 자동출입문, 냉 난방기, 무인경비시스템, 보안 CCTV 등의 편의 시설도 갖췄다.

시는 앞으로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익숙지 않 은 어르신들이 민원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함께 맞춤형 교 육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 추진한다.



### 황남동 새마을회, 새해맞이 환경정비 실시

경주시 황남동 새마을회가 황리단길 일대에서 새해맞이 환경정비를 했다. 정비에는 최병태 새마을 협의회장과 윤태욱 새마을 부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새마을회원들이 참석해 황리단길과 침성로 일원에서 1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은숙 황남동장은 "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갑작스런 새해에도 자생단체 등과 힘을 모아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경주시 황남동 새마을회가 황리단길 일대에서 새해맞이 환경정비를 했다. 정비에는 최병태 새마을 협의회장과 윤태욱 새마을 부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새마을회원들이 참석해 황리단길과 침성로 일원에서 1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은숙 황남동장은 "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갑작스런 새해에도 자생단체 등과 힘을 모아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 경주 노포 어반스케치 작품에 담아...

### 어반스케치협 노포 그리기 작품전시회 '리멤버 경주'

경주어반스케치협회는 21~2월 16일까지 령 북항촌 마을활력소 1층 전시실에서 경주 노포 그리기 작품전시회인 'Remember Gyeongju'를 연다.

이동수 철도도심재생과장은 "도시재생 주민 공동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 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지속 적으로 도심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지 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작은 염서에 담긴 사랑'이란 부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경주어반스케치 협회가 주관 한다.

지난해 지역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진행 된 경주의 노포 그리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전 시하고 작품의 판매 수익은 불우이웃 돕기에 활 용한다.

회원들은 행사를 위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 통과 역사를 지켜온 생업을 이어오고 있는 카페, 식당, 상점 등 30여 군데의 노포를 어반스케치 작품으로 완성해 전시하고 있으며, 작품 당 라 면 3박스의 기부 물품으로 판매한다.

작품 판매와 기부를 통해 모아진 라면은 대한 적십자봉사회 경주시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 웃들에게 나눠준다.

# 중소기업 동행 운전자금 29일부터 접수

## 기업당 최대 3억 이내 용자추천 직접대출 아닌 은행권 협조용자

경주시가 IBK기업은행과 협업해 중소기업 동 행 운전자금 지원 사업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두 기관이 신용보증서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용자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와 보증수수료를 지 원, 경북도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용자이므로 은 행권의 별도 대출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 급심사를 거쳐야 한다.

용자추천 금액은 기업 당 최대 3억 원 이내며, 용자규모는 매년 200억 원씩 3년간 총 600억 원 이다. 시는 중소기업에 이자 차액 2.5%를 보전 하고,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연 1.2% 이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본사나 주 사업장이 경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 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상담은 IBK기 업은행 경주지점과 외동공단지점에서만 가능 하다.

시는 올해 동행 운전자금 지원사업과는 별도 로 시자금 1200억원, 도자금 450억원, 한수원 1000억원(예정) 등 총 2650억원 규모로 중소기 업 운전자금(이자보전금) 지원 사업을 오는 7월 부터 추진한다. 시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원방 안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로 자리매김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경주한수원축구단, '그린이' 2기 모집

### 스포츠산업 열정 관심 가진 대학생 이라면 누구나 지원

경주한수원축구단이 22~2월 1일까지 대학 생마케터 '그린이' 2기를 모집한다.

그린이는 스포츠산업 종사를 꿈꾸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산업 실무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주한수원FC, 경주한수원WFC뿐만 아니

라 스포츠산업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대학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경기운영팀(2명)과 미디어팀(2 명)이다. 경기운영팀은 흥경기의 전반적인 운 영을 지원하며 흥경기 이벤트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한다. 미디어팀은 기사 작성, SNS운영, 사 진과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맡는다.

지원서는 경주한수원축구단 누리집에서 받 을 수 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경주시가 '2024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수질오 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대기·폐수분야 사업장 345곳을 대상 으로 우수, 일반, 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눠 연 1 회 이상 점검을 한다.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 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의 정상운영 여부 등이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 제공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임종식 경북교육감, 교육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다

경북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서 가장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경북교육 만드는게 '교육철학'

경북교육의 미래가 밝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미래이고, 무대는 세계라는게 이유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그의 교육철학은 바로 아이들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 교육감은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교육을 만든다. 임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중점 추진'한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적정규모를 '학생 10명 이하'에서 '학생 15명 이하'로 변경했다.

올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을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화 등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상황을 반영했다. '학생 수 15명 이하'의 학교 중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합 정책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운영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 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운영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치료 △피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일원화 등이다.

전담 조사관 운영은 퇴직 교원·경찰 중 역량 있는 자를 위촉, 사건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 △학생 상담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 조사관 운영 관련 실무자 연수를 시작으로 공백없는 시행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 세부 계획 수립과 전담 조사관 공고 준비를 끝마쳤다.

이상진 교육국장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폭력제로센터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교의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학교 교육력 회복을 통해 학생·교원·학부모가 만족하는, 폭력 없는 학교 문화가 확산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린스마트스쿨 현장지원단 워크숍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칠곡수학체험센터 내 모둘러 전시 체험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현장지원단 35명을 대상으로 '23-24년 그린스마트스쿨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교육 기획 전문가 양성을 통한 스마트 학교 조성의 비전과 목표 △교육과정과 수업의 방향 설정 등 그린스마트스쿨 사전 기획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전 기획 운영의 실제 △사전 기획 단계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제와 방안 모색 △교육 기획 실무 역량 강화 등이다.

현장지원단은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교육 기획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 사용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사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이



미래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학교 조성의 첫걸음인 교육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지원단 양성과 학교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경북의 특색이 담긴 미래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안전 위생 두 마리 토끼 잡다

경북교육청은 칠곡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학교 급식실 후드덕트 청소 전문업체 9곳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학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후드·덕트 청소 전문업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이행 사항 안내 △2024년 사업 방향 안내 등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청소 전문업체 관계자들은 경북교육청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 사업 근로자의 안전까지 세심히 챙기고자 하는 경북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크게 호평했다.

후드·덕트 청소 전문업체의 안전을 위해 경북교육청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위험성 평가 표본 조사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제공한 것은 후드·덕트 청소 전문업체 근로자 안전 확보에 현실적인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분들 역시 경북교육의 소중한 가족이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치원 영양·식생활 교재 개발

교육부가 공모한 유치원 급식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 전국 최초로 유치원 영양·식생활 교육 교재를 개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관리·감독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바뀌었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6개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 영양교사가 없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영양·식생활 △위생 △급식 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했다. 한 유치원당 연 4회 이상 원아를 대상으로 영

양 수업을 해야 하지만, 교육부에서 개발된 교재가 없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자료나 초등학교의 교재 등을 활용, 수업하는 실정이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구성돼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유·초·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식생활과 건강 △식생활과 문화 △식생활과 위생 등 세 영역에 대한 교육자료를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했다.

이 교재는 4개 유치원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개발된 수업 자료는 △수업 지도안 △수업용 PPT 자료 △수업 시연 영상과 함께 도내 유치원과 타 시도 교육청에 배포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원아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더불어 성장단계에 맞는 영양·식생활 교육은 꼭 필요하다. 개발된 교재에 기반한 교육 활동으로 원아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영어 체험 캠프 400여명 참가

경북교육청은 지난 8-19일까지 2주간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원어민 활용 행복한 영어 학교' 겨울 영어 캠프를 운영했다.

캠프는 초·중학생들에게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놀이와 체험 활동을 통한 생활영어 체득을 위해 마련됐다.

'대학교 원어민 활용 행복한 영어 학교'는 평소 원어민과 대면 기회가 적은 학교와 지역의 초·중·고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집중적인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영어 체험 캠프는 △구미대 △안동대 △동국대 WISE 캠퍼스 등 3개 대학에서 진행됐으며, 총 400여 명의 초·중학생들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대학별로 6~10반씩 편성돼 주중 매일 3시간씩 수준별로 다양한 주제 중심의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Foods and Cooking △Creative Arts △Science and Space △Game & Sports △Music & Dance △Travel to the World 등으로, 모든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행복한 영어 학교 대면 영어 캠프 활동을 통해 초·중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고취하고, 글로벌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영어와 친해질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순회 특수교사 136명 배치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순회 교사 136명을 21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했다.

순회 교육은 특수교육 교원이 △각급 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학교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이다.

특수교육 순회 교사 배치는 순회 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난해 132명보다 4명 증가한 136명의 순회 교사가 배치, 307명의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최소 주 2회 이상의 순회 교육을 제공한다.

유치원 순회 교육 대상자가 많은 △포항 △안동 △구미 등 6개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유치원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평가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담당 특수교사를 구미교육지원청에 2명 배치하여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원활한 학교 복귀를 돕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춰 더욱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순회 교육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 박남서 영주시장,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영주' 건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시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 질 높여

박남서 영주시장이 꿈꾸는 영주는 경제도시, 힘있는 문화도시 건설이다. 그는 "탄탄한 농업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의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영주시의 존재 가치가 시민 여러분의 행복에 있다는게 이유다. 박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주를 만들어 나간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를 만든다. 최적의 정주여건, 편리한 교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 등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박 시장은 모든 시민이 품격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노인교실 운영을 통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보장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없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

### ■ 건강 100세 시대 복지 건설

건강 100세 시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21년 기준 여자 83세, 남자 79세다. 언뜻 보면 기본적으로 80은 넘어 사는 것처럼 생각된다. 주변에 어르신들도 대충 그 정도 이상은 사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2~63세(그때는 화갑만 넘으면 장수한 것이라 하여 동네에서 화갑잔치도 벌이고, 내일 죽어도 호상(好喪)이라 했던 시절이다)이었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70세 정도였는데 의학, 기술 등이 발전되며 기대수명은 80년을 넘게 됐다. 2020년 기대수명은 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꽤 장수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질병, 질환을 가진 기간이 남자 14.9년, 여자 19.3년으로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이 남자 65.6년, 여자 67.2년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도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생존인구의 분포에서 [( )는 생존확률] 71세 27만 7000명(86%), 75세 18만 2000명(54%), 국민연금(10년차), 80세 10만 2000명(30%), 85세 5만 2000명(15%), 국민연금(20년차), 90세 1만 6000명(5%), 95세 4000여 명, 99세 650여 명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를 맞아 영주시가 시민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펼친다. 말그대로 건강한 지역사회 활력 불어넣는다. 영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마무리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움츠러들었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새로운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 ■ 건강증진사업 추진

영주시 보건소는 바쁜 생업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시민들의 일터로 찾아가는 '전통시장 건강 증진 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농한기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새달 29일까지 읍면 23개 농촌지역 마을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백세 행복대학'도 운영한다. 4월부터는 ICT기반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시민대상 운동·영양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

### ■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시 보건소는 지역사회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인 만성질환 해결을 위해, 암환자 치료비 지원,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재활건강교실을 운영한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 현대 사회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사업장, 경로당, 복지관 등 시설과 일반 가정집까지 시민 누구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사물지능융합기술(AIoT)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꾀한다.

### ■ 시민 마음 돌보는 사업

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청년 고민상담소 △노년기 마음건강백세 △마음체코데이 △생명사랑 병원·약국 △일산화탄소 중독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통한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부터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에 따라 초·중·고교, 공공기관, 직장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을 확대해 마음 이해와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 치매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지원 △치매실종예방사업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약달력'도 지급해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복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프로그램 등 대상자 및

추형 프로그램과 치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 보호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올바른 정보제공과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운동 등으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앞장선다.

### ■ 보건의료계획 수립

영주시는 얼마전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하는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계획으로 구분된다. 시는 지난해 중장기 계획(2023~2026년)을 수립했다. 매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 심의위원회는 부시장 송호준 위원장의 주재로 보건의료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및 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8기 중장기 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영주'를 목표로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역량 강화 △예방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강화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3개 추진전략, 10개 추진과제, 17개 세부과제로 선정됐다.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확인됐다. 2차년도 시행계획은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을 포함했다. 의료취약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사업, 모성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임신부 산전산후 관리 만족도 등을 역점과제로 수립해 주요 성과지표에 반영했다. 영주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영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후 이달 중 경북도에 최종 제출한다.

### ■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영주시가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가정까지 시기별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사업을 펼치는 데 더욱 확대한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너를 기다리는 설레임(林) 숲태교 프로그램'을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 추진한다. 임신 부부, 임신 희망부부, 출산 후 부부를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숲속 태교명상, 숲길산책,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용품 만들기 등으로 태아의 정서 교감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육아 준비하게 된다. '축복받은 우리아이 희망출발 프로젝트'도 눈여겨 볼 만하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24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부 교실을 운영한다. 임신부들의 출산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 안전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준비를 도운다. 산후 두우미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 확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최대 15일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역시 기준 총 시술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한다. 나이에 따른 금액별 지원기준도 폐지돼 임신희망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도내 최초로 지원한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출생 축하금 5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생장려금 50만 원(12개월), 둘째아 매월 30만 원(24개월), 셋째아 이상은 매월 50만 원(36개월)을 지원한다. 출생가정에 기준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포인트)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지원해 출생가정의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때 효과가 더욱 크다고 판단, 지역단체와 함께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도 추진한다. 김문수 영주시 보건소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사업과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 여의주 문 청룡과 함께 비상

지역발전 위해 시의원 개인 역량 키우는데 힘써 올바른 시정 방향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 협력이 균형 이루는 의정 펼친다

2024 여의주 문 청룡이 갑진년을 향해 날아 올랐다.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도 새해 의정활동 각오는 남다르다.

영천시의원들은 2024년 갑진년 마헌산 흥훈 탐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하기에 영천시의회 의장은 “갑진년 새해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시민이 행복한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 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개인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영천시민들은 영천시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무척 크다.

2022년 7월 제223회 임시회 개원을 시작으로 제9대 영천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 첫 단추를 채웠다.

아심차게 출범한 제9대 영천시의회 12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라는 구호를 걸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제9대 영천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적극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의회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썼다.

2022년 11월 리모델링 공사로 의원 1인 집무실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집무실이 개별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차량을 지원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주요시책추진 10개 사업장과 2023년 9개 사업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2023년에는 입사자 성추행 등으로 문제가 된 장애인거주시설을 시 담당부서 공무원과 함께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의정홍보계를 신설,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기존 언론매체와 의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 유튜브와 같은 SNS 채널을 통해 의회의 업무, 의정활동, 그리고 본회의 영상 생방송 송출 등으로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

새로운 홍보 채널은 시민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신속하게 의회의 소식을 전하며, 동시에 의회의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제9대 영천시의회는 2022년 7월 출범이래 제 234회 회기까지 조례·규칙안 142건, 예산·결산안 30건, 동의안 27건 등 총 3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32건으로 이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역대 최대 발의건수이다.

37차례 5분자유발언과 20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제안을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꼼꼼한 자료 분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로 337건의 불합리한 시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감사 시기를 6월 정례회에서 11월 정례회로 변경했다.

감사보고자 또한 기존 과장에서 국·소장으로 규정에 맞도록 변경해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썼다.

### ■의원의 전문성 강화, 공부하는 의회

제9대 의회는 의정연수, 간담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정연수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영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 외닿는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의원연구단체별로 간담회,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연구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다.

2022년에는 복숭아 시설재배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 영천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영천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위한 의정연구회가 활동했다.

지난해 영천시 통학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 영천시 사인마켓 수출판로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한 의정연구회 총 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다.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에 노력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영천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 ■대구 군부대 유치 한미음

영천시의회는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영천이 최적지’라는 머리를 동여매고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오직 군부대 유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탓이다.

영천시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영천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고 영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천시는 이런 이유로 그간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 10월 홍준표 대구 시장의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공식화 발언으로 많은 시민들이 실망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와 국방부는 민·군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춧돌이던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유치전도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의회도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하기에 영천시의회 의장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잠재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필히 영천시가 유치를 해야 한다”며 “10만 영천시민을 대표해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시민 중심 예산 편성

영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영천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1조 2903억 원 중 72억 4260만 원을 삭감했다.

영천시장의 동의를 얻어 43억 134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영천시의회는 홍보 광고비, 업무추진비 등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산 109건 72억 4260만 원을 삭감했다.

홍보 광고비를 적정선으로 대폭 삭감해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또한 타시군과 비교해 과다 책정된 부분을 조정했다.

예산이 불필요한 비용에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효율성을 개선했다.

반면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시민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 주민 숙원사업, 철도폐선 유휴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 등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대폭 신규 증액 편성했다.

신규 증액한 예산은 102건에 43억 1340만 원이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9000만 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월납참전유공자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 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각 월 5만원 인상) 3억 8,340만 원이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99건 36억 4,000만 원, 철도폐선 유휴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 2억 원이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신규 증액 편성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폐선 유휴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비 편성으로 현재 철도 복선화로 방지되고 있는 철도 폐선 유휴부지를 농로 등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을 증액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2024년 영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결의는 영천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을 보다 많이 편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리에 있어 시민 중심의 원칙을 중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최은하 기자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현장 방문 중인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연수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통학지원서비스



최종보고회 경마공원



### 대민행정 만족도 향상 성주군 친절교육 실시

성주군은 22일 대민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첫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강사로 선정된 민원인과 조상희 주무관'이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이란 주제로 본인이 경험한 친절·불친절 사례 중심 교육과 직원상호간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피부에 와닿는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한편 민원과는 매주 월요일 업무 시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늘의 강사로 선정된 직원'의 민원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교육안을 준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도재훈 기자**



### 기자연합회 경북북부회장 영양군에 장학금 100만원

(사)한국기자연합회 김연학 경북북부지회장이 22일 영양군청을 방문해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연학 (사)한국기자연합회 경북북부지회장은 "자녀가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며,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기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 같은 영양의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배움의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연학 지회장의 기탁금은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소중한 재원이 되어 교육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우수 외래강사 지원사업 등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인다. **권윤홍 기자**



### 2024 성주 생산품 가이드 '별고을 성주 드림이' 발간

성주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관내 생산품 홍보를 위해 2024년도 성주군 생산품 가이드 북 '별고을 성주 드림이(이하 드림이)'를 발간했다.

드림이 책자에는 성주의 대표 농특산물인 참외, 사과, 버섯을 비롯해 성주황금꿀참외떡, 참외쿠폰차, 참외셰이크 등 성주참외를 그대로 담은 듯한 신상 가공식품과 등겨장, 유과 등 전통식품까지 관내 우수 생산품들을 한눈에 보길 수 있도록 수록했다.

군은 관내 주민센터와 주요 관광지 등에 드림이 책자를 비치하고, 군 공식 홈페이지 및 SNS에도 게시해 성주의 우수한 생산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재훈 기자**

# 영덕서 전국 최대 규모 '춘계 중등 축구대회'

## 110개팀 4500명 선수단 참가 축구 발전, 지역 활성화 기여

영덕군이 축구 성지로 거듭난다. 영덕군에서 '2024 STAY영덕 춘계 전국 중등 축구대회'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관내 7개 축구장에서 펼쳐진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북도축구협

회와 영덕군축구협회, 영덕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 대회다.

이번 대회는 중등 고학년 68개 팀과 저학년 42팀, 총 110개 팀 4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국에서 참가해 청룡, 백호, 유스컵 3개의 그룹으로 나눠 14일간 조별 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을 겨루게 된다.

영덕군은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와 '춘·추계 전국중등 축구대회'에 대한 장기 개최 협약을 맺어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월에 열리는 춘계대회와 7월과 8월 추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협약으로 영덕군은 뛰어난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최대의 춘·추계 중등 축구대회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군기인 축구 활성화는 물론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가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와 관광자원이 융합된 이곳 영덕군에서 선수단 여러 분께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란다"며 "선수단과 가족분들이 영덕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반반의 준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올해 풋볼스타 윈터-서머 리그, K리그 유스 대회 등 각종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다함께 행복한 새로운 청도!...청도여성 신년교례회 개최"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청도여성 신년교례회'를 열고 희망찬 새해 출발을 위한 도약의 자리를 마련했다. 노현미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새해에도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청도의 중심에 여성이 함께하여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행복한 청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행복한 청도를 만드는데 여성리더들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영양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 수비·입암면 유통시설 신축 운송비 지원 농가부담 완화

영양군은 농가에서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24년도에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급 조절 및 저장으로 품질 유지를 위해 수비면 발리리, 입암면 병곡리 일원에 농산물 유통시설을 신축한다.

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입한다. 농산물 택배비(10만 건, 4억 원) 및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운송비(2억5천만 원)를 지원해 택배비용 및 물류비용 등 농가부담도 덜어준다.

또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실현을 위해 연중 직거래장터행사 참여, 대도시 아파트 단지 내 장터를 신규 개설해 국내 판촉에 앞장선다. **권윤홍 기자**

영양군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 수출농식품 홍보판촉 및 안전성제고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외 농산물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노후된 선바위 농특산물 직판장은 체험·전시·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형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선바위관광지 개선사업과 연계한 농특산물 직판장 확충사업은 영세농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선바위관광지 방문객들에게 문화·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도농상생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

오창동 영양군수는 "24년도에 농가에서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라며 "급변하는 농업시장에서 '살맛나는 부자농촌'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하고 아울러, 농가에서는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권윤홍 기자**

## 고령문화원,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진흥 기여 공로 인정

고령문화원이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생활문화 확산 및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령문화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모두의 생활문화' 공모에 선정됐다.

'고령문화(文化)를 다다'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령을 담다', '장날캠페인' 등 총 409회의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농촌사회의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해 11개 마을을 선정하고 찾아가는 생활문화프로그램도 만들

었다. 이번 수상은 고령문화원 설립 이후 처음 받는 장관상으로 그동안 고령문화원이 고령만의 차별화된 생활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결과물이다.

신태운 고령문화원장은 "그동안 고령군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받지 않는 균형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이번 표창장 수여로 인정받게 된 것 같다"며 "수상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도 고령만의 특화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기여하는 지역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고령문화원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청 고령군수는 "고령문화원이 지역민에게 풍부한 문화의 장을 열어주고자 펼친 다양한 노력이 이번 표창장 수여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고령군은 고령문화원과 함께 군민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예천 원도심-신도시 상생발전 기틀 짚는다

### 郡, 스마트시티 구축 등 사업 계획

예천군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예천군 성장관리계획은 2028년부터 계획관리 지역에서 공장 및 판매 시설의 신규 입지 제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 간 연결도로 주변의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행위 제한·밀도 계획, 인센티브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원도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백전리 새마을 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31억 원을 들여 빈집·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한우특화센터 건립과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

민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도시내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도시 내 상습 침수지역인 도청대로 구간 중 경북도서관에서 도청119안전센터까지 배수시설을 정비해 잦은 침수로 인한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 및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도시정보와 I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주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한다.

전기자동차 도입, 블랙아이스 감지시설, 스마트 버스벨트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과 주차관제시스템, 유도관제시스템 설치 등을 4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말했다. **안병욱 기자**



## 귀농·귀촌 플랫폼 활성화 예천군, 우수 지자체 선정

예천군이 지난 16일 대한민국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대로' 12월 정보제공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작년 7월 오픈한 '그린대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귀농·

귀촌 플랫폼이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관 정보 현행화와 활성화를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지역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린대로' 지자체관 구축을 완료한 전국 139개 시군 중 예천군이 최고의 평가를 받아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예천군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외에도 예천 홈페이지의 귀농정보 안내를 통해 예천군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안병욱 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 꿈꿔

군민과 함께, 모두 잘 사는 청송  
청송군, 2024 군정운영 방향 발표  
변화 이끄는 농업정책 전격시행  
농림사업 군예산 1040억원 투입  
희망 농업·농촌 건설 '전력질주'

윤경희 청송군수가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꿈꾼다.

윤 군수가 내건 새해 군정목표는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이다.

부간 농촌청송, 고을마다 웃음꽃 피는 청송을 건설하고 싶은 게 그의 바람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

지역 현안 사업을 넘어 국비예산까지 총망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업정책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이다.

나고 자라는 모든 것은 흙에 기원을 두고 있는 말 그대로 농업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이유다.

올해 청송군의 예산도 늘어났다.

전년도 보다 1.8% 증액된 4745억원이다.

윤 군수는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정책과 생활이 넉넉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경제와 문화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근본적인 농업 시스템 혁신으로 자연재해와 대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으로 농업인이 잘 살고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

윤경희 청송군수는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을 새해 농정운영방향으로 정했다.

농림사업분야에 군예산의 24%인 1040억원을 투입, 희망 농업·농촌 건설에 전력질주한다.

군은 △자연재해 걱정 없는 영농환경 조성 △비용은 줄고 소득은 높은 생산체계 구축 △생산성 높은 차세대 농업시스템 구현이라는 3대 농정중점전략을 마련했다.

향후 청송군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대 중점전략은 △자연재해 걱정 없는 영농환경 조성 △비용은 줄고 소득은 높은 생산체계 구축 △생산성 높은 차세대 농업시스템 구현이다.

군은 자연재해 걱정 없는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 농어민수당 4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347억원, 올해 신설된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등을 포함,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 마련에 지원한다.



윤경희 청송군수

친환경농업육성 및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에 지속적으로 지원,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식량작물의 생산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등 140억원, 저품질 사과 시장격리 구매 8억원, 과원 미세 살수장치 44억원을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대응, 안정적 농산물생산과 영농환경 조성에 힘쓴다.

청년 농업인 육성에 5억원을 투입한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 발굴을 통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한다.

비용은 줄고 소득은 높은 생산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 ■ 미래 농업시장 대비

청송군의 주 소득원인 과수생산기반 선진화를 위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83억원을 쏟아부었다.

이 뿐이 아니다.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혁신을 위한 미래형 과원 조성 묘목비 33억원,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과실전문단지 생산기반 조성 24억원, 과수용 농기계지원,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과수 고품질 생산자재 등 과실 품위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9억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 20억원, 채소·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에 8억원을 지원, 사과 외 농가 수익 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 농업시장에 대비한다.

생산성 높은 차세대 농업시스템 구현은 무척 중요하다.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다변화하고 유통시스템 전환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등으로 청송사과 수출기반을 조성,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한다.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으로 생산비 절감정책을 추진하여 농가 부담을 줄인다.

농가 및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 홍보활동을 지속, 국내 사과시장 유통방식의 혁신을 선도하고 판매증진에도 힘쓴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6억원, 산지유통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지원 15억원, 농가경제 안정 도모를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8억원, 청송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출하 농가에 5억원을 지원한다.

### ■ 살기 좋은 농촌환경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청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정성과 노력을 다한다.

문제는 우리 농업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농업은 날씨와 자연조건에 의존도가 높아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해 봄 3900여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군은 매년 반복되는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살수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윤 군수는 "지원 한도를 2ha로 늘리고 보조비율과 단가도 대폭 올려 농가 부담을 줄이고 피해 예방 효과는 높이도록 한다"고 말했다.

청송사과 연구단지에서 병해충에 강한 대목을 육성·보급, 과수화상병과 탄저병 등 전염병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재해를 예방하는 재배 기술을 보급,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인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와 농업인 안전 보험료, 농어민 수당 지원으로 자연재해가 유발하는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윤 군수는 농촌의 가장 아픈 현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농업 일손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 ■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그는 "현재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미래 농업의 실현을 위해 농업 노동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농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내놓은 노동력 줄이는 농업정책이 바로 꼭지 무절단이다.

실제 청송군이 먼저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을 시작했다.

사과꼭지 절단은 도로 사정이 나빴던 70년대에 운송 중 과실 손상을 줄이기 위해 시작,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도로 여건이 좋아지고 포장재가 개선된 지금은 과거처럼 과실 손상이 높지 않다.

오히려 꼭지를 절단하면 절단면을 통해 수분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동APC



고품질 고추생산

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꼭지 절단 사과를 불량품으로 취급한다.

필요성이 없어진 꼭지 절단에 전국적으로 660억원이 매년 낭비되고 있다.

군은 관내 계통출하 조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출하처를 방문,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는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확대를 경북 농업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선정, 추진한다.

윤 군수는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을 잘 정착시켜 국내 사과시장 유통 방식을 노동력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군수는 스마트 농업은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투자 자금으로 진보면에 3만 평 규모의 스마트농업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재배시설을 갖추고 연간 600억 정도의 농산물 생산과 2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한다.

진보 스마트 농업 단지가 청송군 스마트 농업 과연관산업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도록 한다.

청송군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윤 군수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 미래 지향적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구축과 농기계 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한다"고 말했다.

노동력은 줄고 생산성은 높은 영농환경을 조성,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병모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